



즉시 배포용: 2019 년 2 월 1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정폭력 및 혐오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 발표

*특정 범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개인도 이제 가정폭력 쉼터 비용 및 범죄현장
청산비에 대한 청구 자격 취득*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은 세납자의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자격조건을 갖춘 피해자의 범죄 관련 비용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범죄 당시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혐오범죄 및 가정폭력과 연관된 기타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법안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지난 여름 서명하고 오늘 발효된 새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쉼터 비용 및 범죄현장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고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원하는 첫 번째 주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확대는 뉴욕주가 회복이 최우선과제인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범죄 행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들을 돕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러한 일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새 법은 범죄 피해자들이 회복에 필요한 필수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 일을 선도합니다.”

이전에는 범죄 당시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들은 오직 범죄행위가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불법적으로 방해했거나 특정한 협박, 괴롭힘, 가중 처벌 대상의 괴롭힘, 범죄 혐의, 스토킹 위반, 중요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오직 피해자 지원국(OVS)이 제공하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 카운슬링 및 이주 비용과 관련된 의료비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치료 관련 비용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나, 범죄 현장 청소 및 쉼터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VS)에

청구된 이러한 비용은 이제 오늘부터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협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강도 등 범죄를 당했으나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이나 상담 비용을 보전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Elizabeth Croni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OVS)은 모든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감정에 미치는 범죄의 영향도 개인에게 매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확대로 인해, 가정폭력과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아 회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rystal People-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과 혐오범죄라는 끔찍한 행위를 겪은 피해자 및 생존자들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인생과 가정, 가족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모든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해 옹고 정의로운 일을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찬사를 보냅니다.”

Patrick Galliv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혐오범죄 및 기타 폭력의 피해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우리는 더욱 많은 무고한 범죄 피해자들이 시련에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주 전역의 주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서비스 수령 조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이루어진 주 법의 개정 및 재정 투자 확대의 일환입니다. 다른 중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민사 사법 지원 확대를 위한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약 1,600 만 달러의 연방 자금 투입. 학대, 방임 혹은 재정적 착취에 취약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위한 840 만 달러의 주 및 연방 자금 투입. 아동 지원 센터 확대와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센터 지원에 450 만 달러 투입.

더불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중 범죄로 인해 최대 30,000 달러를 잃은 사람은 피해자 지원국(OVS)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많은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재정 착취는 물론 종종 지인에 의한 학대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지원국이 피해자들의 부양비 또는 소득액 손실에 대해서만 이 정도 금액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취약한 노인을 위해 만들어진 주 법에 따르면, 연령 조건은 최소 60 세입니다.

게다가 가족을 대신해 매장 비용을 지불해주는 장례식 업자는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으로부터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오직 가족이나 장례식장 소유주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매장 비용을 발생시킨 개인만 보전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장례식장이 현재 개인 소유자가 아닌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 업체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피해자 서비스 사무실은 최대 6천 달러의 장례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 개정안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 및 보전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의 일상 운영 비용을 위한 자금은 특정 위반자가 뉴욕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 후 납부해야 하는 벌금, 의무 부가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관해서

피해자 지원국(OVS)은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게 된 후 기타 지원 수단을 갖지 못한 범죄 피해자와 또는 그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자격이 되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비와 매장비, 분실된 임금 및 지원, 필수적인 개인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 추가로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하여 보상 및 보전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현재 뉴욕주 전역에서 카운셀링, 위기 개입, 권리 옹호, 법률 지원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222 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격 여부 지침을 비롯하여 당국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ovs.ny.gov 를 방문하거나 1-800-247-8035 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